

“찐팬 잡아라”... LGU+, 지인 결합 등 ‘충성고객’ 확보 총력

(열성팬)

요금 결합 서비스 ‘U+투게더’ 출시
데이터 사용 부담·가계통신비 절감
충성 고객 확보로 록인효과 기대

“양보다 질을 중요하게 생각해 통신 사업의 본질인 고객가치 개선에 집중하고 고객이 주변에 우리의 서비스를 알리는 ‘찐팬(열성팬)’을 만들어야 한다.”

LG유플러스가 황현식 사장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강조한 ‘찐팬’ 전략을 새해부터 가동하고 있다. 가장 우선시 되는 타깃은 5세대(5G) 이동통신 가입자들이다.

LG유플러스는 5G·LTE·인터넷 요금 결합 서비스 ‘U+투게더’를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가족을 비롯해 지인까지 결합이 가능한 서비스는 5G·LTE 시장에서 처음이다.

두 가지 이상의 통신 서비스를 묶거나 가족이나 친구끼리 함께 가입하면 할인된 요금으로 공급하는 결합상품을 통해 이용자는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고, LG유플러스는 록인(Look-in) 효과를 누릴 수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들이 ‘U+투게더’를 알리고 있다.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에서 ‘찐팬’을 강조하는 이유 중 하나는 충성고객 확보를 통해 록인효과를 누릴 수 있고, 관련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LG유플러스가 출시하는 U+투게더는 통신 요금을 묶을수록 할인이 커지는 결합서비스다. 5G·LTE 무제한 요금제로 가입 가능하다. 결합은 최대 5명까지 할 수 있다. 할인액은 2인 결합

시각 1만원, 3인 시각 1만4000원, 4인~5인은 각 2만원으로 결합 인원이 많을수록 할인액도 올라간다.

선택약정 25% 할인과 LG유플러스의 ‘LTE요금그대로약정’ 5250원 할인이 더해지면 총 할인액은 더 커진다. 4인 결합을 한 5G 무제한 요금제(월 8만5000원) 가입자는 결합(2만원)·선택약정(2만1250원)·LTE요금그대로약정

(5250원)으로 총 4만6500원을 할인을 받아 월 3만8500원에 월정액을 쓸 수 있다. 8만원대의 5G 무제한 요금제를 월 3만원대로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LG유플러스는 이번 U+투게더 결합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무제한 요금제 3종도 신설했다. 우선 ‘5G 프리미어 에센셜’은 월 8만5000원에 5G 데이터 무제한, 셰어링·테더링 데이터를 각각 15GB 제공하는 요금제다.

5G 요금제와 동일한 명칭의 LTE 무제한도 내놓았다. ‘LTE 프리미어 플러스’는 월 10만5000원에 LTE 데이터가 무제한이며, 셰어링·테더링 데이터는 각각 50GB씩 서비스한다.

U+투게더 결합은 새롭게 출시한 무제한 요금제 3종과 기존 무제한 요금제 4종을 통해 쓸 수 있다. 5G에서는 시그니처, 프리미어 슈퍼·플러스·레귤러·에센셜 5종이 해당되며, LTE에서는 프리미어 플러스·에센셜 2종으로 가능하다.

모바일뿐만 아니라 인터넷 결합도 제공한다. 500M 이상의 U+인터넷 서비스 12종을 함께 결합할 수 있으며, 최대 월 1만1000원씩 3회선까지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 결합은 모바일 고객 5인 외의 명의로도 가능하다.

U+투게더는 지인 결합 시 대표자를 지정해야 하며, 결합 이후에는 대표자를 임의 변경할 수 없다. 요금 청구 계정은 대표자로 통합해야 한다. 대표자가 월정액을 납부하면 계정을 3인~4인이 동시 접속해 사용하는 ‘넷플러스’와 같은 OTT 서비스들과 유사한 식이다. 이로 인해 친구, 지인이나 모르는 사람과도 최대 5인까지 결합해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월 4~5만원대 5G 중저가 요금제 ‘5G 슬림+’, ‘5G 라이트+’를 출시하며 새해 5G 요금제 경쟁에도 불씨를 지핀 바 있다. 이러한 LG유플러스의 ‘찐팬’ 전략이 통신 요금 패러다임에도 변화를 일으킬지 주목되고 있다.

LG유플러스 이상현 컨슈머사업혁신그룹장(상무)은 “이번 결합 상품을 통해 고객들이 데이터 사용 부담을 덜고, 가계통신비는 절감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현대차,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나선다

ESS 실증사업 본격적으로 개시
산자부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
국내 탄소 감축 활동 적극적으로 참여

현대자동차그룹이 전기차 배터리와 재생에너지를 연계한 실증사업에 착수했다.

현대차그룹은 10일 전기차에서 회수한 배터리를 재사용한 에너지저장장치(ESS)와 태양광 발전소를 연계한 실증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한 친환경 자원 순환 체계 구축에도 속도를 높인다.

국내 전기차배터리 재사용은 인허가 규정이 정립되지 않아 추진이 어려웠지만 현대차그룹이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실증사

업은 2018년 지어진 현대차 울산공장 내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2MWh급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에너지 저장장치(ESS)에 저장했다가 외부 전력망에 공급하는 방식의 친환경 발전소 형태로 운영된다. 더불어 정부에서 발전 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확보 및 판매를 통해 국내 탄소 감축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그룹과 한국수력원자력의 협력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이번 실증사업은 향후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과 연계해 세계 최대 규모의 3GWh급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전기

차에서 회수한 배터리의 친환경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태양열, 수력, 풍력, 조력, 지열 등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활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사업을 통해 수집 및 분석되는 데이터는 국내의 관련 인허가 규정을 보다 정교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 확대에 용도를 다한 배터리 물량이 수년 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배터리의 재활용 및 재사용 사업은 글로벌 친환경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부터 한국수력원자력, 파워로직스, OCI, 한화큐셀 등과 다양한 기술 제휴 및 협약을 맺고 전략적인 사업 전개를 준비해 왔다.

/양성운 기자

“국내 최초 IPTV서 e스포츠 즐기세요”

KT ‘올레 tv 뷰플레이’

KT는 인터넷TV(IPTV)에서 보는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올레 tv 뷰플레이’를 국내 최초로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11일부터 ‘올레 tv 뷰플레이’를 통해 다양한 게임 콘텐츠를 TV의 화면을 통해 즐길 수 있게 됐다. 국내 대표 멀티채널네트워크 기업 샌드박스네트워크 소속 크리에이터들의 영상을 비롯해 아프리카 TV 생중계 방송과 KT 롤스터 e스포츠 경기 등 1만여 편 이상의 게임 콘텐츠를 한데 모아서 IPTV를 통해 제공하는 것은 KT가 처음이다.

KT는 ‘게임은 누워서 봐야 제 맛’이

라는 뷰플레이의 슬로건을 내걸었다. TV 환경에 최적화된 사용자 환경을 바탕으로 취향을 분석해 볼만한 콘텐츠도 추천해준다. 좋아하는 게임 크리에이터의 영상만 편하게 골라 볼 수 있는 구독 기능도 넣었다. 또 별도로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아프리카 TV의 게임 콘텐츠를 바로 재생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뷰플레이는 11일부터 올레 tv 라이브 서비스 고객 중 UHD 셋톱박스, 기가지니, 기가지니 테이블 tv를 이용하면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올레 tv 화면에서 뷰플레이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일부 유료 콘텐츠도 마련됐다.

/김나인 기자

KT

‘기가지니 테이블 TV2’

KT는 이동성을 더한 인공지능(AI) TV ‘기가지니 테이블 TV 2’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제품은 2019년 4월 선보인 국내 최초 일체형 AI TV 기가지니 테이블 TV의 후속 모델이다. 기가지니 테이블 TV는 TV와 셋톱박스, AI 스피커가 결합해 집안 어디서나 즐길 수 있어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에 출시한 기가지니 테이블 TV 2는 이전 제품에 비해 화면이 약 29cm(11.6인치)에서 34cm(13.3인치)로 커졌다. 일반 TV와 연결해 대화면으로 즐기는 것도 가능하다.

/김나인 기자

‘대통령 車’ 편견 깨고 젊어진 캐딜락



캐딜락 ‘CT4 도심형 스포츠세단’

좁은 공간, 2열에 성인 3명 탑승 부담
와인딩 구간서 뛰어난 매력 뽐내



캐딜락 CT4.

미국의 대표적인 고급브랜드 캐딜락은 ‘대통령의 차’를 연상케한다. 특히 대형 럭셔리 SUV 에스컬레이드로 유명해 국내 시장에서는 크고, 넓고, 길다는 느낌이 강했다.

그러나 캐딜락은 지난해 젊은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위해 퍼포먼스 세단 CT4를 출시하는 등 브랜드 변화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출시한 CT4는 BMW 3시리즈와 벤츠 C클래스, 아우디 A4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D세그먼트 시장에 합류하며 업계 관심을 집중시켰다. 최근 만난 CT4는 독일 3사 차량과 비교해도 디자인·주행감·안전장치 등 그들에게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으로 매력을 지니고 있다.

CT4의 첫 인상은 ‘참 잘달리게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다. 낮고 넓은 차체를 바탕으로 역동적인 스타일을 갖추고 있다.

CT4에 적용된 후륜구동(RWD) 플랫폼 특유의 긴 대쉬와 액슬(차축) 사이의 거리가 넓게 벌어진 차체의 모습은 패스트백 디자인과 더해져 퍼포먼스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한다. 특히 에스칼라 콘셉트에서 영감을 얻어 더욱 스포티하게 정제된 데이터임 러닝 라이트와 크레스트형 스포츠 메쉬 그릴은 CT4의 퍼포먼스적 존재감을 더하고 있다.

특히 3시리즈와 C클래스 처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탓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주차장에서는 “색상 디자인이 예쁘네요”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다.



캐딜락 CT4 실내 모습.

한가지 아쉬운 점은 실내 공간이 생각보다 좁다는 점이다. 후륜구동 특성상 가운데 턱이 있어 2열에 성인 3명이 탑승하기 부담스럽다. CT4 전장은 4755mm, 전폭 1815mm, 전고 1424mm이며 휠베이스는 2775mm다.

주행성능은 매력적이다. 동력계는 4기통 2.0L 트윈 스크롤 터보 엔진과 8단 자동변속기 조합이다. 최고출력 240마력, 최대토크 35.7kg·m를 발휘하며 5대 5에 가까운 앞뒤 무게배분을 통해 정교한 주행이 가능하다. 회사는 엔진 터보락을 현저히 줄였고 낮은 엔진회전수(1500rpm)에서 최대토크를 뽐낼 수 있는 트윈 스크롤 기술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동을 걸고 가속 페달을 밟자 빠르게 반응했다. 특히 일반 도심은 물론 고속도로와 짧은 코너가 연속되는 와인딩 구간에서 뛰어난 매력을 뽐냈다. 와인딩 구간에서 가속페달을 밟아도 차체가 흐트러지지 않고 민첩하게 빠져나갔다. 경쾌한 엔진음은 운전의 즐거움을 선사했다. /양성운 기자 ysw@